



정력과 기력을 높인다

(마늘 · 로얄제리 · 누에가루)

두리원 대표 김해용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1. 성(性)에는 나이가 없다.

입국 할 때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 받았던 권시웅은 귀국 1년이 못되어 72세 노인인 그가 처정에 의해 방화범으로 수감되었다.

성에 대한 문제는 젊은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늙은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다. 1966년 미국의 매스터즈와 존슨의 공동으로 쓴〈인간의 성적반응〉이란 저서에서는 “남녀 구별없이 성적충동과 성행위는 일생동안 지속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여성의 성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고, 남성의 경우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이 유지하는 한 80대 이상의 연령에서도 지속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성은 젊은이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늙은이도 같이 공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70대에서 성생활을 포기한 남자는 17%, 여성은 49%로 나타났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이다.” 하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모든 부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성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다. 성관계가 원활하면 경제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화기(和氣)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를 안고 살게 된다.

젊은 부부가 이혼하였을 때 이혼 사유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고 한다. 이것은 하기 좋은 말이고, 실은 90%가 성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데 있다. 아직 성은 부끄러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적당한 말을 찾다보니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IMF으로 주춤하였다가 경제사정이 좀 나아지자 다시 번창하는 것이 러브호텔 사업이다. 주

위환경이 좋다고 여겨지는 곳은 몇 백미터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다. 뜻있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개탄도 하지만, 속사정을 알면 이해 할 수 있는 면도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자기부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 영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나 다른 여성과 관계하면 잘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1주일에 한번씩은 외도를 하게 된다고 했다. “자네는 다른 여자로 몸을 풀고 부인에게는 굶겨 놓으면 되겠는가?” 했더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성생활에 있어 제일 큰 적은 피로이다. 피로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적 충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피로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은 여자 곁에 가는 것보다는 잠자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이런 남성도 다른 여성과 만나면 교감신경이 흥분으로 일시적 피로가 없어지고 성적 흥분이 오기 때문에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위해 좋은 스테미너(Stamina) 제품을 내놓게 되었다.

2. 마늘

마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0년도이다. 경북 의성 친척집에서 2개월간 생활을 했다. 그때 아저씨는 식사 때마다 마늘 3~4쪽(6쪽 마늘 기준)을 언제나 드시고 계셨다. 마늘 드신 지는 오래 되었고, 병원을 모르는 생활을 한다고 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농사일에 열심이었고, 스테미너도 언제나 넘치는 모습이였다. 명절 때 만나면 다른 친척들보다 건강했다. 몇 년 전에는 80세가 가까운 나이에 주차관리인으로 일한다고 했다. 마늘은 여전히 그때와 같이 잘 먹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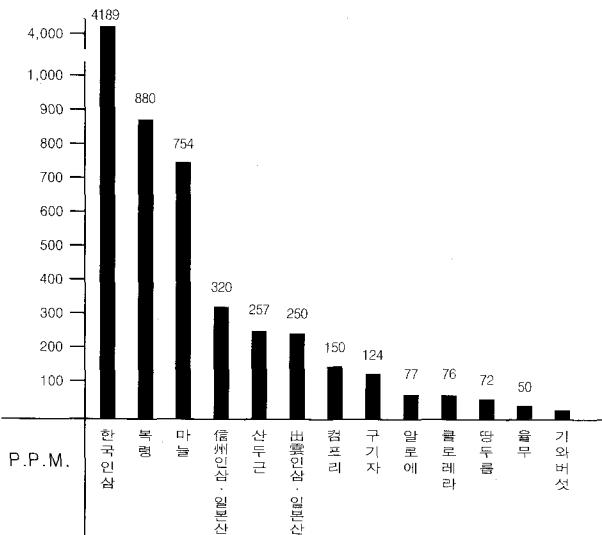
건강한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할 수 있는



생활습관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생활습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질 함량이 제일 많은 토양이 마늘 경작지이다. 마늘은 퇴비를 넣어주지 않고서는 마늘이 굵지 않기 때문이다. 마늘을 먹는다는 것은 곧 퇴비와 같은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것이 된다. 마늘의 역사는 동양이나 서양할 것 없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호식품으로 사용된 지는 얼마되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약용으로 스테미너 증진과 간장제로 이용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거대한 피라밋을 세울 때 일꾼들의 기운을 내기 위해 마늘을 먹었다는 일화가 있고, 성경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광야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부추와 마늘을 먹었던 그 시절을 몹시 그리워했다. 이 식품이 스테미너 식품이고 보면 그들도 인간인지라 광야생활을 하면서도 정력이 강해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다. 마늘을 먹고 나면 몸 전체가 훈훈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것은 체내에서 활력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의 주성분은 알리신(Allicin)이다. 이것이 체내에서 비타민B1과 결합되어 알리디아민(Alithiamin)이 된다. 알리디아민은 비타민 B1이 분해되는 것을 먹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므로 세포를 활성화하여 정력을 증강시켜 준다. 알리신은 진통, 해독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병까지 잘 되게 하는 등 여러가지 작용을 한다.

마늘에서 검출된 이눌린 성분이 콩팥의 기능을 증진시키



<게르마늄 함유량 비교표>

는데도 뛰어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마늘이 성적기능을 악화시켜 주는 알리신의 작용도 크지만, 거기에는 성 기능을 촉진시키는 스크르지닌이라는 효소도 함유되어 있다. 이것이 서로가 결합되었을 때 충추신 경제를 더욱 자극케하여 성기를 발기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늘은 비아그라 같이 성기만 발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퇴비와 같은 주요성분들이 각 세포에 고루 퍼지면서 체내 호르몬선을 자극하여 성적 능력을 증가시켜 주므로 효력이 나타난다.

마늘의 성분에는 수분이70%, 당질20%, 단백질1.3%, 비타민에는B1과 C가 들어 있다. 미네랄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산, 황산, 구산, 염소, 게르마늄 등이 들어 있고, 마늘의 냄새와 매운 맛은 휘발성의 정유에서 난다. 마늘의 효과는 향균성 물질의 하나인 알리신에 있다.

알리신은 125,000의 1 농도에서도 포도상균, 이질균, 콜레라균에서 항균작용을 나타내고, 마늘즙 3%액에서는 여러가지 균(菌)의 성장이 억제된다.

마늘의 주작용은 알리신이다. 알리신의 함유량도 마늘에 따라 다르다. 10쪽 마늘에서 783mg%, 6쪽 마늘에서 459mg%, 산 마늘에서는 424mg%, 양파에서는 159mg% 검출되었다. 마늘은 혈액 응고를 막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 영국에서 첫 발표가 나왔을 때 의학계에서 화제가 된바 있다. 마늘을 본초학(本草學)에서는 “습(濕)을 없애고, 냉(冷)과 풍(風)을 몰라내고, 비(脾)를 튼튼하게 하고, 위(胃)를 따스하게 한다”고 했다. 근래에 와서는 마늘이 관절염에 직접적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마늘의 문제점은 냄새에 있었다. 이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하여 무취마늘을 개발한 경남 박봉래 선생이 있다. 이분으로 인해 두리원에서 무취마늘을 열을 가해 냄새를 없앤 것이 아니고 활성화는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고 인체에 유익한 맥반석을 이용하여 냄새를 제거한 것이다. 두리원에서는 오래전부터 마늘을 상품화 시킬려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시키지 못한 것은 마늘 냄새 때문이었다. 시험용으로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며칠간 공장 전체가 마늘 냄새로 일을 못할 정도였다. 그런 마늘을 먹고 여러사람들 앞에서 가스로 실례했을 때 그 무례함이 너무 클 것 같아 상품화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다행히 무취마늘이 개발되므로 두리원에서 상품화 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늘의 효능을 높이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결 건조(凍結乾燥)한 마늘을 두리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3. 로얄제리

1) 장수식품의 대명사

과학이 발달하면서 식품학도 발전하게 되었다. 식품학의 발전으로 식품이 영양학적으로 좋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거나 다른 데 없는 특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이 그 식품을 소개 할때 사용하는 공식문구이다.

그러나 벌의 생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영양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로얄제리(RoyalJelly)야말로 인간이 그렇게 찾으려고 갈구 하였던 불로장수의 비약(秘藥)이 바로 로얄제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로얄제리는 여왕벌의 먹이라는 뜻이다. 여왕벌의 알이나 일벌의 알은 동일하다. 그러나 먹는 먹이에 따라 여왕벌이 되고, 일벌이 된다. 알에서 3일만에 부화된 후 계속 로얄제리를 먹은 유충은 여왕벌이 되고, 꿀과 화분을 먹은 유충은 일벌이 된다. 일벌의 수명은 2~5개월이지만, 여왕벌은 3~4년을 산다. 조건이 좋은 때는 하루에 1,000~1,500개 알을 산란한다. 이것은 여왕벌의 몸무게에 배에 해당하는 무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장수와 스테미너를 연구하는 학자들 입에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로얄제리이다. 로얄제리는 스테미너와 장수식품의 대명사라고 한다.

2) 세계적으로 알려지다.

로얄제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로마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다. 1954년 교황이 폐렴과 노환으로 위독할 때 자연요법 전문 가인 칼레지(Caleazzi) 박사의 주선으로 로얄제리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교황은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다. 이 사실을 1955년 로마에서 열린 국제의회에학대서 로얄제리에 관한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로얄제리의 효과가 의학계에서 먼저 알려지게 되었다. 다음해 서독에서 열린 제2회 국제유전과학회의에서 발표된 로얄제리에만 들어 있는 특이한 성분이 건강 증진과 인간의 수명과 연장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했다.

1958년 로마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양봉회의(APMODIA)에 친히 참석하여 자신이 로얄제리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로얄제리를 사용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로얄제리를 생산하는 양봉인에게 감사의 연설까지 했다. 이로 인해 생산자들은 로얄제리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로얄제리 생산 기술의 향상으로 생산량이 높아졌고, 메

스컴 덕분에 보급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수년전부터 일본의 연간 로얄제리 소비량은 20톤으로 늘어났다.

이것이 일본 돈으로 500억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0억원이 로얄제리 사용에 투자되었다.


3) 항암작용 및 성신기능 자극

1959년 캐나다 규엘프대학의 타운센드(G. F. Townsend)교수가 2년간 1,000마리의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성분의 작용은 10-하이드록스 덴센산(10-HAD : 생명중추 관여물질)이라고 했다. 이 성분은 항암 이외에 혈액 개선 작용까지 한다고 한다. 로얄제리의 단백질은 소화관에서 분해되어 필수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 중에 들어있는 케티오닌은 간을 보호해 주고, 글루타민산은 대뇌피질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로얄제리는 성장 발육 촉진, 콩팥조직의 재생, 노쇠된 세포를 건강하게 하므로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혀준다.

성기능에 있어서 성신경을 자극하여 난소, 고환의 기능을 좋게하여 주고, 정자(精子) 생산량을 많게 하여주므로 성생활을 질적으로 높혀준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잘 오는 갱년기 장애를 없애주고, 새로운 의욕을 갖도록 해준다.

로얄제리는 인간이 가장 필요로하는 필수아미노산 8가지 외에 10여가지의 아미노산을 더 함유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김영수군 꿀벌 박사학위 취득 (서울농업과학생명대학 대학원 졸업)

서울농대 우건석 교수(양봉과학연구소장)의 제자인 김영수군은 서울농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오하이오 대학에서 "꿀벌의 · 과실파리 및 슈파리"의 학습활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김영수군에게 본 협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바 있으며, 앞으로 양봉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보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영수군에게 전국 양봉인을 대신해 박수를 보낸다.